

온전한 無我 실천이 참수행의 길

법산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12월 동국대 교정은 분주했다. 가을 동안 나무를 떠나지 못한 단풍은 뒤늦게 낙엽 될 체미를 한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시험을 앞둔 마음의 무게만큼 책을 가슴에 안고 종종걸음으로 교정을 오간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2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둔 12월 3일, 연구원 원장으로 스님으로, 대학교수로 한국 불교학 증흥에 힘쓰는 법산 스님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를 찾았다.

동국대가 위치한 남산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인경산으로 불렸다. 조선 태조가 건국 2년 만에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 후 “궁궐 남쪽에 있는 산이니 남산으로 개명하라” 해 남산으로 지칭됐다. 남산의 다른 이름, 북쪽산이란 명칭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해 산신령을 모신 신당을 남산에 세웠던 데서 기인한다.

남산은 풍수지리로도 중요했다. 서울로 도성을 옮기게 한 무학대사가 서울 천도를 결심하기 전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올랐다. 대사는 우면산 우면대에 올라 동서남북을 살피며 “잠자는 소의 목 끈을 남산에 매어놓아야 한강수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를 만큼 남산은 서울의 중심이었다.

동국대 교수회관에 위치한 스님의 연구실에 들어서니 법산 스님이 천진한 미소로 객을 맞는다.

“차부터 한잔 합시다.”
‘눈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目擊而道存)’고 했던가. 지국이 바라보며 차를 따르는 본 스님의 시선에서는 벌써 말없는 법문이 다 판의 물결기를 따라 찾던 가뭄 속 솥아지고 있었다. 향긋한 녹차 내음을 가득 품고 찻잔을 몇 배나 들었을까. 스님의 유수(流水)한 법문이 찻잔을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마시는 녹차는 구증구포(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한 것)입니다. 구증구포 해야 좋은 차라 불리며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지요. 뿌리가 곧아 땅 속 깊숙한 곳의 기운까지 모두 빨아올리는 차나무는 잎에도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이 얼마나 독하면 염소도 찾았을 먹지 않아요. 아홉 번을 300°C 이상의 고온에서 찌고 말리고 반복해 독성을 제거해야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발효차도 똑같아요. 방법만 달리해 여러 번 비빈 후 발효시켜 독성을 없앤 거지요.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지향은 ‘전식득지(轉識得智)’입니다. 식(識)이 변화한 후에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식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수행해야 식이 전환될 수 있어요.

(스님은 다관에 새 물을 채우며 말했다.) 깨끗한 물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성질이 바뀌고, 쓰임이 달라지고, 이름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 물을 찻잎을 넣어 녹차라 불리지만, 커피를 넣으면 커피요,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되지요? 본래 물인데 물들에 따라 이름이 바뀌듯 저 역시 스님으로 살지만 “내가 스님입네”하고 자만심을 갖으면 상에 머무는 것(住相)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대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뒷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隨處作主 立處皆真)라는 말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관문을 무너뜨릴 힘이 쌓이게 됩니다. 은산철벽이 터지고 무너진 순간



법산 스님 1945년 경남 남해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사.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흥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했고, 교수 임용 후에는 학계 뿐 아니라 조계종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도제양성에 앞장섰다. 동국대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한국선학회·한국정토학회 등을 거쳐 조계종 고시위원장, 보조사상연구원장, 인도철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수행도 녹차의 ‘구증구포’처럼 해야하는 것” “의심하고 또 하다보면 ‘나’라는 생각 무너져”

이 바로 오도(悟道)의 순간입니다. 은산철벽은 다르게 아니에요. 고집불통. 바로 ‘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혹하고 은산철벽 안에 스스로 갇힌 것이지요.

(차물이 바닥에 조금 흘렀다. 스님은 차를 옮기며 말을 이었다.) 바닥이 더러우면 뒤야내야 합니다. 닦고 또 닦고. 거울은 보이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기억하지 않고 담고 있지 않아요. 선입견은 없는 것을 존재시켜 문제인 것입니다. 노랑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노

랴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정말 노랗게 물든 것은 아닙니다. 안경을 벗어야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듯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노랑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노 고집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든 겹집을 깨고 벗어내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깨침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나’라는 생각부터 조복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금강경>의 ‘항복기심(降伏其心)’이나 <법화경>의 ‘질복기심(折伏其心: 그 마음을 질복 받음)’, <화엄경>의 ‘조복기심(調伏其心: 그 마음을 조복 받음)’ 모두 마음 수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 모두가 수행지침서입니다. 어떤 경전이든 부처님께 읽고 또 읽고, 새기고 새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스님 말씀을 들으니 다리가 저려왔다. 어찌 아셨을 까? 살다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비만 넘기면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참지 못해 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이지요. 고비를 넘기기 어려우면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다보면 고통이, 번뇌가 사그라듭니다. 마음의 안정 속에 착상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받아 지혜예요. 보시·인욕·지계·정진·선정·지혜 육바라밀이 있지만 육바라밀은 결국 받아 바라밀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별과 집착을 버리려면 ‘보시’가 최고이며, 보시 하는 데는 ‘인욕’이 필요합니다. 인욕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전화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받습니다. 호신불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데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머니 미소처럼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는 관세음보살을 어머니에 투영함은 불자라면 당연한 생각일터. 법산 스님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 싶어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10세 때 모친이 별세했어요. 학교 다녀오는 길에 집 담장을 끼고 때문에 다다랐을 때 집까지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중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활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생겼고, 친척들이 대하던 분위기도 변했지요. 한 사람(어머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사실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나무하고 물 길는 틈틈이 글자로 쓰인 것이면 다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어느날 할머니가 “공부하고 싶으면 짚에 가보라”고 권하더군요.
15세에 활자를 결심하고 남해 망운암을 찾았습니다. 은사 덕산 스님에게 다음날부터 염불을 배웠는데 처음 배운 것이 저녀종승입니다. “이 종소리 들자마자 번뇌망상 끊어지고 불법지혜 자라나며 지옥고통 사라지고 삼계고해 벗어나며 무상불도 증득하여 중생제 도하여지다(聞鐘聲煩惱斷 智慧長菩提生 離地獄出三界 願成佛度衆生.)” 구절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1961년 남해 화방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습니다. 수계 후에는 은사스님에게 중학교 강의록을 사달래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짚에 고시공부하러 왔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루느라 찾았던 고성 육원사에서 노전 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산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마산 봉곡사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범어 전문이던 김도안 교수가 방학 전 제게 <범어문법> 책을 외워 쓰라며 주길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범어실력을 본 서경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권유로 동국대에 편입했고요. 서교수 인연으로 통도사 극락암도 찾아 1968년 경봉 스님을 만났고, 후에 건강까지 했습니다.

석사는 <중론>을 전공해 원희법 교수에게 지도 받고, 당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이 개설이라 박사과정을 불교학과로 진학해 김동화 박사에게 지도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수강생이 하나여도 꼭 강단에 서서 강의실에 학생이 꼭 들어찬 듯 강의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배운 교수와 학생이 융화된 가르침은 교수생활 하는데

1961년 남해 화방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습니다. 수계 후에는 은사스님에게 중학교 강의록을 사달래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짚에 고시공부하러 왔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루느라 찾았던 고성 육원사에서 노전 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산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마산 봉곡사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범어 전문이던 김도안 교수가 방학 전 제게 <범어문법> 책을 외워 쓰라며 주길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범어실력을 본 서경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권유로 동국대에 편입했고요. 서교수 인연으로 통도사 극락암도 찾아 1968년 경봉 스님을 만났고, 후에 건강까지 했습니다.

석사는 <중론>을 전공해 원희법 교수에게 지도 받고, 당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이 개설이라 박사과정을 불교학과로 진학해 김동화 박사에게 지도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수강생이 하나여도 꼭 강단에 서서 강의실에 학생이 꼭 들어찬 듯 강의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배운 교수와 학생이 융화된 가르침은 교수생활 하는데

1961년 남해 화방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습니다. 수계 후에는 은사스님에게 중학교 강의록을 사달래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짚에 고시공부하러 왔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루느라 찾았던 고성 육원사에서 노전 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산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마산 봉곡사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범어 전문이던 김도안 교수가 방학 전 제게 <범어문법> 책을 외워 쓰라며 주길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범어실력을 본 서경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권유로 동국대에 편입했고요. 서교수 인연으로 통도사 극락암도 찾아 1968년 경봉 스님을 만났고, 후에 건강까지 했습니다.

석사는 <중론>을 전공해 원희법 교수에게 지도 받고, 당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이 개설이라 박사과정을 불교학과로 진학해 김동화 박사에게 지도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수강생이 하나여도 꼭 강단에 서서 강의실에 학생이 꼭 들어찬 듯 강의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배운 교수와 학생이 융화된 가르침은 교수생활 하는데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땀머리 풍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트름, 비진,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癩氣,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갑자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00 ~ 22: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나. 2일차 (일요일 09:00 ~ 13:00)
 - ◆ 신비한 수지의 비밀
 - ◆ 단번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감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 종합, 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4. 강좌 일정 및 장소
 -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 (1)일 정 : 2008. 12. 13(토) 오전 9시부터 ~ 12. 14(일) 오후 1시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 (2)수강료 : 34만원 (유왕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116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금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림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 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천경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인사분란하게 정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실등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2월 13일(토) 저녁 9시 ~ 2008년 12월 14일(일) 아침 7시 (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화색법복·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담 닦는 수건, 면양모 2컬레, 발로해(절수형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발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이렛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박색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수행도우미

기본종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형,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뱀,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오 (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도련할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필수 피로 완화 해소

[호락호락팬티, 왁산삼매오, 보석연꽃네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 발목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메인 : www.법왕정사.kr